

꿀과 꿈의 경계선에서 청렴을 생각하다

꿀의 의미

나는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몇 해 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던 시절의 이야기가 떠올라 한번 적어본다.

평소 노봉주(露蜂酒)와 같은 별술에 관심이 많던 ○○ 선배가 내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반장,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면 나랑 어디 좀 갈래?”

“어디를요?”

“아, 지난번에 우리가 양수기로 물 퍼내어 주었던 양봉업자네 집 기억하지? 거기서 뭐 좀 줄 게 있다고 하던데……. 재미있는 구경 시켜줄 테니 오늘 나랑 같이 좀 가자.”

나는 선배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양봉업자는 버선발로 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야외에서 바비큐를 하던 중이었는데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먹고 가라고 했다. 우리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그의 저녁 식사에 합석하게 되었다.

“이 술도 한잔 잡쉬봐. 이게 바로 내가 만든 노봉주라네, 하하.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인 기라. 지난번에 신세 진 것도 있고 해서 내가 억지로 자리를 멩글어 놓은 기야. 지난번에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이 없었으면 내가 제대로 물난리를 겪었을 게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려.”

“아이쿠, 그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가능하지만 술잔을 받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이따 집에 갈 때 직접 운전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출근이라…….”

“에이 대리운전 부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이 시골에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나요?”

“우리 집까지는 안 오지만 요 앞에 큰길까지는 오지. 우리 동네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오십 가구는 거뜰히 넘는다니까. 허허.”

우리는 대리운전 기사가 온다는 말에 안심하고 술을 받아 마셨다. 잠시 후 양

봉업자의 친구가 왔는데, 그분은 소방조직에서 무려 30년간 근무하다가 몇 해 전 정년퇴임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 퇴직 선배는 공직 생활의 파란만장했던 무용담을 근 한 시간 동안이나 쏟아내었다.

“내가 소싯적에 이 노봉주를 만들어서 명절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 선물로 줬지. 그래서 나도 편안하게 공직 생활 했고 말이야, 하하. 요즘 뭐 김영란 법이다 청탁금지법이다 하면서 말들 많은데, 그놈의 법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따스한 정이 다 사라져갈 판이야. 이런 영양가 높은 술도 선물해 주고 또 굴비 같은 선물도 받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저기 고기 굽고 있는 이 집 주인 양반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만든다고. 그러니까 내 걸로 가져가. 그러면 앞으로 자네들 공직 생활 탄탄대로라고, 하하. 이런 노하우는 어디 가서 배우지도 못해. 오늘 내가 기분이 대따 좋으니 수강료 하나도 안 받고 과외 해주는 걸세 하하.”

○○ 선배는 양봉업자로부터 술을 건네받더니 얼큰하게 취한 얼굴로

“이 빨간 향아리는 우리 과장님 거, 이 파란 향아리는 우리 팀장님 거 그리고 이 금색 향아리는 내 거. 하하! 오늘 술맛 죽이는구먼. ○반장, 지금 뭐 하고 있어? 술 단지 얼른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 선배의 행동을 보고서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순간, ○○ 선배는 나를 흘겨보면서 말했다.

“시끄럽고 됐어.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신경 끄게.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먼저 집으로 가든지. 나는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서 말이야. 여기 이 돈으로 대리기사 불러서 가.”

난 ○○ 선배의 행동에 화가 났고 자존심이 상했으며 마음 깊은 곳에 생채기가 났다. 그날 이후 나와 ○○ 선배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다. 나는 모종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발판삼아 진급했던 퇴직 선배와 또 내 옆에서 부정확한 방법으로 현재를 살아가려고 하는 ○○ 선배 모두에게 큰 실망을 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예전의 방식대로 살다가는 분명 이 사회에서 도태될 거라고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꿈의 의미

순간 나는 내 소년 시절의 일화(逸話)가 하나 떠올랐다. 반장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내 초등학교 5학년의 봄날. 등교 준비를 하던 내게 어머니가 다가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거 깨질 염려가 있으니 조심히 들고 가라. 엄마가 담임선생님 뵙고 직접 드리고 싶지만 엄마는 지금 출근해야 하고 또 오후에는 병원에도 가야 하니 네가 잘 챙겨서 가거라. 너 반장 하고 싶으면 탄소리하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이거 외할아버지가 새벽부터 챙겨준 거야, 알겠니?”

어머니가 내 손에 건네준 것은 ‘토종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있는 향아리였다. 당시의 내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있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던 분이였다.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반장으로 만들기 위해 소중하게 간직했던 꿀단지를 꺼내 놓으신 거다.

꿀단지를 건네받은 담임선생님은 잠시 고민에 잠기시더니 “이건 선생님이 받지 않는 게 좋겠구나. 선생님은 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거 도로 가져가고 어머님께는 마음만 감사히 받았다고 말씀드리렴. ○○아, 너는 지금 학교생활 잘하고 있고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늘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어. 특히, 종례 후 술선수범으로 청소하는 네 모습을 보고서는 선생님이 많이 반했단다. 너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 선생님의 말을 잘 알아들으리라 믿는다. 어머님께서 반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걸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볼 때 정정당당하게 겨뤄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란다.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 모두의 편이고 모두를 사랑하거든. 가장 공정한 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반칙 없이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자세거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이런 꿀이 없어도 이루지 못할 일은 없어. 선생님 말 알아듣겠니?”

그 당시는 부모가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흰 봉투를 건네는 일이 비밀비재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행동이 유별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꿀단지가 흰 봉투보다 더 초라하게 여겨졌다.

‘다른 애들 엄마는 다 흰 봉투 드리던데 우리 엄마는 창피하게 꿀단지기 뭐야 꿀단지기.’ 이런 생각도 했으니 말이다.

며칠 후에 치러진 학급 반장선거에서 나는 오십여 표 중 삼십 표 이상의 유효표를 획득하여 반장에 당선되었고, 그날 우리 가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멋진 외식을 할 수 있었다.

그 시절 내가 처음으로 맛보았던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 ‘꿈’은 ‘꿀’을 통해서 절대 이뤄낼 수 없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다음 날 선생님은 내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아, 봐라. 꿀을 가지니 되잖니.”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내 초등학생 시절의 꿀과 퇴직한 소방 선배의 꿀은 어떻게 같으며 또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허니문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꿀은 그 자체로 매우 달콤하면서 또한 행복을 상징하는 물질이다. 하지만, 꿀을 이용하여 신분 상승을 노리거나 권력을 지향한다면 그건 옳지 못한 행동일 것이다. 꿀을 이용하여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의 문을 두드릴 것이 아니라, 마음속 꿀을 간직한 채로 부단히 노력하여 뜻하는 바를 성취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꿀이 아니라 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꿀을 건네는 기술이 아니라 꿈을 향해 정진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